

주요개념 : 모-태아상호작용 양상

임신 주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

권 미 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여성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 경험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경험으로서 인간의 성숙을 위한 하나의 전환기적 위기로 간주된다. 그리고 임신기간은 태아에게 모체의 선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출생 후 모아애착 및 자녀의 정상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시기로 인식된다(장정미, 2006). 태아와 임신부는 일심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서적 결속을 다지기도 하여 임신한 어머니의 몸과 마음가짐은 태아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므로 태아의 발육과 출생 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김정순, 2002).

Rubin(1984)은 어머니와 아기와의 최초의 상호작용 시기는 산전기간이라고 하였으며, Sluckin, Herbert와 Slukin(1983) 등은 각각의 모-태아 상호작용은 고유하며 태아와의 인지된 상호작용이 어

머니로 하여금 임신을 실감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는 태아는 어머니에게 추상적 존재이며, 이러한 추상을 현실로 살아있는 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태아의 움직임, 즉 아기로부터의 초기의 피드백이며 어머니는 이 태아의 움직임을 통해 태아의 점진적인 성장을 인식한다(Rubin, 1984). 임신 제 2기에 태동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임부는 태아에 대한 자각과 함께 태아와 상호작용이 강화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체성과 역할 획득을 달성한다(Rubin, 1977). 임신 제 3기에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안정된 표상을 갖게 되며 이 시기의 태아와 모성자신의 표상은 모-태아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출생 후에는 임신기 동안의 부속물이었던 태아가 분리된 객체로서 객체화(externalization)되는 출산 후 3-4주 혹은 그 이상기간의 정신적 진행과정을 거쳐, 영아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임신기에 형성된 모-태아 관계는 연구결과 출생 후의 모-아 상호작용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Cohen & Slade, 2000; Schore, 2001; Siddiqui & Hagglof, 2000). 이와 같이 임신 시기별로 어머니가 태아를

* 관동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권미경 : mkkwon@kd.ac.kr

인지하는 것이 다르며 태아와의 상호작용 양상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애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태내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임신부-태아 간 정서적 상호작용 패턴은 모-영아 간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주며 모-태아상호작용을 통하여 임신기간 동안 임부의 태도, 감정 및 행동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윤지영, 2004). 또한 임신기 때 태아와 이미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게 되면 출생 후 엄마와 영아 간 곧바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Brazelton, Koslowski, Barbara, & Main, 1974). 따라서 모-태아 상호작용은 영아기 모아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신기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전환점인 시기이며 부모역할의 결정적 요소인 임신과 초기 영아기 적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는 개입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된다(윤지영, 2004).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처음 부모가 되는 초산모들은 임신부터 출생초기 그들 자녀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에 선행되는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신기별로 다르게 접근해야하는 간호 중재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각 시기별 모-태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기초 자료로서 이용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임신기별에 해당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을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G시의 보건소 및 산부인과 의원 1곳에서 산전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합병증이나 기존 질환이 없으며 의사로부터 태아발육이 정상이라고 진단된 임신부 중 30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300명의 임신부들에게 작성 요령을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 되는대로 회수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자료가 부실한 2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273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모-태아상호작용 양상

본 도구는 Self-Talk Questionnaire를 Nelson과 Fazio(1995)가 수정한 것을 김정순(200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의 문항 중 모-태아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임부의 행동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값은 .77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임신기별 모-태아 상호작용 양상은 X²-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작용에 관한 연구(권미경, 2008)의 후속 연구로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1.04세였으며 임신 시기별로는 임신 1기 9.1%, 임신 2기 43.9%, 임신 3기 47.0%로 평균 임신 월수는 6.33개월이었다. 62.6%의 대상자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66.7%는 전업주부였고, 월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41.08개월이며, 81.0%가 핵가족이었다<표 1>.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모-태아상호작용 신념과 모-태아상호

2.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

1)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

임신부가 배를 만지고 태아가 반응을 보이는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에서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3)

특성	항 목	실수	%	Mean±SD	Range
나이	19~29세	101	37.0	31.04±3.98	19~42
	30~40세	119	43.6		
	41세 이상	53	19.4		
임신주기	1기(1-3개월)	25	9.1	6.33±2.12	2~10
	2기(4-6개월)	120	43.9		
	3기(7-10개월)	128	47.0		
학력	중졸	4	1.5		
	고졸	98	35.9		
	대학이상	171	62.6		
직업	전업주부	182	66.7		
	사무직	50	18.3		
	전문직	41	15.0		
종교	있음	120	44.0		
	없음	153	56.0		
결혼기간	12개월 이하	89	32.7	41.08±37.23	2~240
	13-36개월	54	19.6		
	37개월 이상	130	47.7		
수입	1백만원 미만	7	2.6		
	1~2백만원 미만	112	41.0		
	2~3백만원 미만	95	34.8		
	3백만원 이상	59	21.6		
거주자	부부만	221	81.0		
	시부모와 함께	37	13.6		
	친정부모와 함께	15	5.4		

<표 2>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

(N=273)

장소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잠자리에서*	예	10	23	54	21.59	.00
	아니오	21	85	69		
집에서*	예	4	69	106	46.18	.00
	아니오	18	40	17		
직장에서*	예	0	17	20	4.13	.13
	아니오	22	92	103		
여행할 때*	예	0	2	9	5.28	.07
	아니오	22	107	114		
혼자있을 때*	예	4	32	62	15.04	.00
	아니오	18	77	61		
아플 때*	예	1	6	7	.05	.98
	아니오	21	103	116		
상점에서*	예	1	3	7	1.03	.55
	아니오	21	106	116		
전혀 일어나지 않음*	예	10	15	2	39.71	.00
	아니오	12	94	121		

* 무응답 제외

가장 많았으며 '잠자리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 임신 기별 차이를 보였다<표 2>.

특히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하여 임신 3기의 임산부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임신 1기의 임산부들은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2)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 임산부의 느낌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에 임산부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한, 사랑스러운, 죄책감 등에 대한 영역에서 임신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임신기가 증가할

<표 3> 모-태아상호작용 시 감정

(N=273)

감정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없음*	예	2	3	2	3.88	.14
	아니오	20	106	121		
행복한*	예	11	72	98	10.55	.01
	아니오	11	37	25		
슬픈*	예	0	0	1	1.07	.59
	아니오	22	109	122		
에민한*	예	0	3	6	1.65	.44
	아니오	22	106	117		
화난*	예	0	0	0	1.34	.51
	아니오	22	109	123		
귀찮은*	예	0	1	0	1.34	.51
	아니오	22	108	123		

* 무응답 제외

<표 3> 모-태아상호작용 시 감정(계속)

(N=273)

감정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흥분됨*	예	1	11	14	.95	.62
	아니오	21	98	109		
사랑스러운*	예	5	43	82	25.68	.00
	아니오	17	66	40		
두려운*	예	0	3	2	.86	.65
	아니오	22	106	121		
평온한*	예	3	21	33	2.89	.24
	아니오	19	87	90		
짜증나는*	예	0	0	1	1.07	.59
	아니오	22	109	122		
죄책감이 드는*	예	1	0	0	10.59	.01
	아니오	21	109	123		

* 무응답 제외

수록 태아에 대한 감정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3) 모-태아상호작용 시 신체적 접촉 양상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 신체적 접촉 양상은 주로 배를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배를 찌르거나 미는 경우는 있었지만 세계 치는 경우는 없었다. 임신기에 따라 가볍게 두드리기,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경우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4>.

4) 신체적 접촉이나 태담 후의 태아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표 4> 모-태아상호작용 시 접촉유형

(N=273)

접촉유형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만지지 않음*	예	0	3	1	1.72	.42
	아니오	21	107	121		
가볍게 두드린다*	예	0	22	38	11.09	.00
	아니오	21	88	84		
쿵쿵찌른다*	예	0	3	5	1.10	.58
	아니오	21	107	117		
껴안는다*	예	3	4	8	3.57	.15
	아니오	18	106	114		
세계친다*	예	0	0	0		
	아니오	21	110	122		
밀어올린다*	예	1	3	13	5.94	.05
	아니오	20	107	109		
쓰다듬는다*	예	11	82	104	12.47	.00
	아니오	10	28	18		
문지른다*	예	4	37	58	8.57	.01
	아니오	17	73	64		

* 무응답 제외

배를 만지거나 태담 후 태아의 변화에 대한 임신부의 반응은 대부분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가 많았다. 특히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움직임이 멈추었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발이나 다리 혹은 팔을 뻗었다'라는 문항에서 임신기별 차이를

<표 5> 신체적 접촉이나 태담 후의 태아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N=273)

민감성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전혀 달라지지 않음*	예	2	19	3	15.13	.00
	아니오	19	90	120		
움직임이 멈춤*	예	2	12	28	6.60	.04
	아니오	19	97	95		
움직임이 느려짐*	예	1	12	12	.78	.68
	아니오	20	97	111		
움직임이 활발해짐*	예	4	36	69	17.94	.00
	아니오	17	73	54		
위치를 바꿈*	예	1	8	17	3.39	.18
	아니오	20	101	106		
팔다리 혹은 발을 뻗음*	예	0	19	45	18.97	.00
	아니오	21	90	78		

* 무응답 제외

<표 6> 태담 시 어머니의 감정 (N=273)

감정		임신주기			χ^2	p
		1기(n=25)	2기(n=120)	3기(n=128)		
행복한*	예	18	84	98	.54	.76
	아니오	4	26	25		
슬픈*	예	0	1	2	.54	.76
	아니오	22	109	121		
평온한*	예	5	42	51	2.77	.25
	아니오	17	68	72		
귀찮은*	예	0	1	0	1.32	.52
	아니오	22	109	123		
예민한*	예	0	0	1	1.08	.58
	아니오	22	110	122		
흥분된*	예	4	6	12	4.15	.13
	아니오	18	104	111		
사랑스러운*	예	8	48	74	8.41	.02
	아니오	14	62	49		
두려운*	예	1	3	2	.82	.67
	아니오	21	106	121		
짜증나는*	예	0	0	0		
	아니오	22	110	123		
죄책감이드는*	예	0	0	1	1.08	.58
	아니오	22	110	122		
보통임*	예	1	2	6	1.67	.43
	아니오	21	108	117		

* 무응답 제외

보였다<표 5>.

5) 태담 시 어머니의 감정

태담 시 어머니는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행복하거나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두렵거나 슬프다고 한 경우도 있었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기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사랑스럽다'이다<표 6>.

6) 태담 시 어머니의 어조

태담 시 어머니의 어조는 대부분 사랑스럽거나

편안하였으나 보통이거나 명령조의 어조인 경우도 있었으며 임신기별 차이는 없었다<표 7>.

7) 태담이나 몸짓 후 아기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태담이나 몸짓 후 태아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서 대부분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자신보다는 태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태아가 무엇인가를 하든가 움직이고 있다가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임신기별로 차이는 없었다<표 8>.

<표 7> 태담 시 어머니의 어조

(N=273)

어조		임신주기			χ ²	p
		1기(n=25)	2기(n=120)	3기(n=128)		
사랑스러운*	예	14	60	76	.90	.64
	아니오	8	46	46		
편안한*	예	11	68	83	2.73	.26
	아니오	11	39	39		
걱정스러운*	예	0	0	0		
	아니오	22	107	122		
홍분됨*	예	0	1	2	.53	.77
	아니오	22	106	120		
짜증나는*	예	0	0	0		
	아니오	22	107	122		
명령식으로*	예	0	2	1	.82	.66
	아니오	22	105	121		
보통임*	예	2	11	10	.30	.86
	아니오	20	96	112		

* 무응답 제외

<표 8> 태담이나 몸짓 후 아기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N=273)

기대		임신주기			χ ²	p
		1기(n=25)	2기(n=120)	3기(n=128)		
기대하지 않음*	예	0	3	4	.67	.72
	아니오	20	103	119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2	12	7	2.41	.30
	아니오	18	94	116		
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18	84	105	2.25	.32
	아니오	2	22	18		
아기가 어떤 것을 하거나 멈출 것이다*	예	2	15	14	.52	.77
	아니오	18	91	109		

* 무응답 제외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임신주기에 따라 임신부가 배를 만지고 태아가 반응을 보이는 등의 모-태아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직장이나 상점 보다는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또는 침대에 있을 때 주로 모-태아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부가 이플 때나 여행 중에는 모-태아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모-태아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모-태아상호작용의 빈도를 조사한 권미경(2007)의 연구에서 '집에서'(42.1%), '혼자 있을 때'(20.0%) 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태아의 움직임은 어머니가 덜 활동적일 때(Nasello-Paterson, Natale, & Connors, 1988)와 저녁이나 이른 밤에 더 활동적이며, 식사시간은 태아의 움직임을 어머니가 더 잘 지각할 수 있다(Minors & Waterhouse, 1979; Patrick, Cambell, Carmichael, Natale, & Richardson, 1982)는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임신 3기에 비해 임신 1기나 2기는 이와 같은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많아 재태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태아에게 더 많은 말을 한다고 한 Nelson, Fazio와 Grasch(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재태기간이 증가하면 태아의 움직임도 많고 어머니의 행동에 태아가 더 많은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 임신부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두려움에 대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은 임신

주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임신이 진행될수록 태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나의 인격체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재태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출산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권미경(2007)의 연구결과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 신체적 접촉 양상은 배를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경우, 가볍게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권미경(2007)의 연구에서도 쓰다듬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였으며 임신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임신이 진행될수록 어떤 형태든 간에 피부접촉이 더 많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소수의 임신부는 배를 찌르거나 미는 경우도 있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임신부의 정서적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나 태담 후 태아의 반응은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신기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움직임이 멈추었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발이나 다리 혹은 팔을 뻗었다'로 태동을 지각하는 임신 후기에 더 많은 태아의 움직임을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신 40주에 가까워지면 어머니는 태아의 움직임이 활동적인 기간과 조용한 기간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으로(Nasello-Paterson, Natale, & Connors, 1988)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권미경(2007)의 연구결과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어머니의 음성이나 말을 이용한 청각적 자극과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등의 촉각적 자극은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도 양방향성의 모-태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김정순, 2002).

태담 시 어머니는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행복하거나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어조도 또한 사랑스럽고 편안하다고 하여 권미경(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임신기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사랑스럽다'로 임신이 진행될수록 사랑스러운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렵거나 슬프다고 한 경우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며 걱정스럽다는 부정적인 어조도 있었는데 Nelson과 Fazio(1995)는 어머니가 태아에게 하는 말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며, 혹은 복잡하고 모호한 정서가 나타났고, 말이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경우도 있었으며, 또 불안, 분노,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표현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애정, 기쁨, 기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여 임신 중에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태담이나 몸짓 후 어머니는 태아에게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자신보다는 태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마스크이나 책자를 통하여 태아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 태아의 성장발달에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보건소의 임신부 교실이나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태내환경은 출생 이후의 환경보다도 태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태아는 태내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태아에게 환경은 바로 모체이며 임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태아에게 전달되므로 태아에 대한 존엄성은 바로 모체를 잘 관리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곽영덕, 김미화, 2002). 특히 모-태아간의 상호작용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어머니이며 반응하는 태아에 대해 어머니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유도하는 상호작용 증진 행위는 태아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기별 모-태아 상호작용 양상을 조사하여 모-태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보건소와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한 임신부 273명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태아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하여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가정에서 모-태아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혼자 있을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 임신기별 차이를 보였다.
2.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에 임신부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한', '사랑스러운', '죄책감' 등에 대한 영역에서 임신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3.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시 신체적 접촉 양상은 주로 배를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임신기에 따라 '가볍게 두드리기', '쓰다듬기', '문지르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4. 신체적 접촉이나 태담 후 태아의 변화에 대한 임신부의 반응은 대부분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움직임이 멈추었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발이나 다리 혹은 팔을 뻗었다'라는 문항에서 임신기별 차이를 보였다.
5. 태담 시 어머니의 감정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행복하거나 사랑스럽다고 하였으며 임신기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사랑스럽다'이다.
6. 태담 시 어머니의 어조는 대부분 사랑스럽거나

편안하였으나 임신기별 차이는 없었다.

7. 태담이나 몸짓 후 태아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서 어머니 자신보다는 태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임신기별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1. 임신 우울증이나 임신 합병증과 같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태아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임신기별 모-태아상호작용 양상 자료를 근거로 모-태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곽영덕, 김미화 (2002). 부모교육론: 21세기 새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양서원.

권미경 (2007).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 아동간호학회지, 13(4), 416-426.

권미경 (2008). 모-태아상호작용 신념과 모-태아상호작용. 아동간호학회지, 14(4), 370-378.

김정순 (2002). 태담과 촉각 자극의 모-태아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지영 (2004). 임신중 태아와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어머니-신생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정미 (2006). 임신기 부모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 지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razelton, T., Koslowski, Barbara, & Main, M. (1974). "The origins of reciprocity: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and L. 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Cohen, L. J., & Slade, A. (2000). The psychology and the psychopathology of pregnancy: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In C. H. Zeanah (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2nd Ed. (pp. 20-36). New York: Guilford Press.

Minors, D. S., & Waterhouse, J. M. (1979). The effect of maternal posture, meals and time of day on fetal movements.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86, 717-723.

Nelson, L. J., Fazio, A. F., & Grash, C. (1994). Maternal interactions with fetus during pregnancy in different populations.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Nelson, L. J., & Fazio, A. F. (1995). Emotional content of talk to the fetus and healthy coping behaviors during pregnan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6, 179-191.

Nasello-Paterson, C., Natale, R., & Connors, G. (1988). Ultrasonic evaluation of fetal body movements over 24 hours in the human fetus at 24 to 28 weeks' gest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58, 312-316.

Patrick, J., Cambell, K., Carmichael, L., Natale, R., & Richardson, B. (1982). Patterns of gross fetal body movements over 24 hour observation intervals during the last 10 weeks of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42, 363-371.

Rubin, R. (1977). Binding in the postpartum,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6(2), 67-75.

- Rubin, R. (1984). Maternal identity and maternal experience. NY: Springer.
- Schore, A. N. (2001). Effects of a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 7-66.
- Siddiqui, A., & Hagglof, B. (2000). Does maternal prenatal attachment predict postnatal mother-infant interaction? Early Human Development, 59, 13-25.
- Sluckin, W., Herbert, M., & Sluckin, A. (1983). Maternal bonding. Oxford, UK: Basil Blackwood.

ABSTRACT

Key Words : Maternal-fetal interaction

Maternal-Fetal Interaction Aspect according to Period of Pregnancy

Kwon, Mi Kyung*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ere to describe Maternal-Fetal Interaction aspect according to period of pregnancy.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73 pregnant women who visited one public health center and OBGY clinic in Gangneung city.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During maternal-fetal inter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ace, feeling, touch type, voice tone, sensitivity according to period of pregnancy. **Conclusion:** Maternal-fetal interaction aspect according to period of pregnancy is different. Thus, it is essential to develop maternal-fetal interaction program that includes maternal-fetal interaction aspect according to period of pregnanc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